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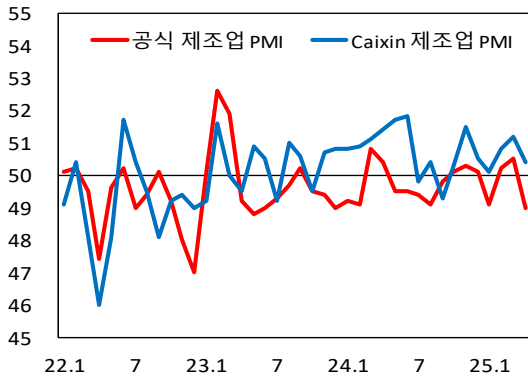
제목

## 중국 4월 제조업 PMI 하락

### 1. 4월 PMI의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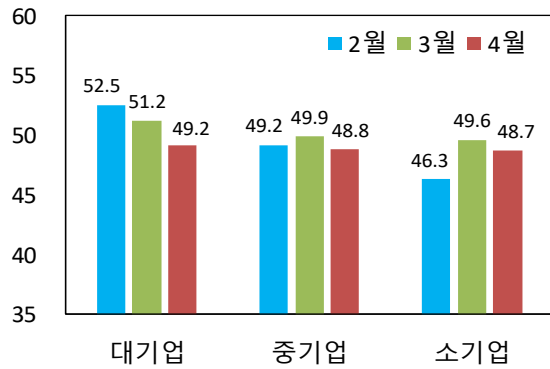
- (제조업 PMI) 4월 제조업 PMI는 49.0로 전월(50.5)보다 1.5p 하락하면서 기준치(50)를 하회
- 규모별로는 대기업(3월 51.2 → 4월 49.2), 중기업(49.9 → 48.8), 소기업(49.6 → 48.7)이 모두 하락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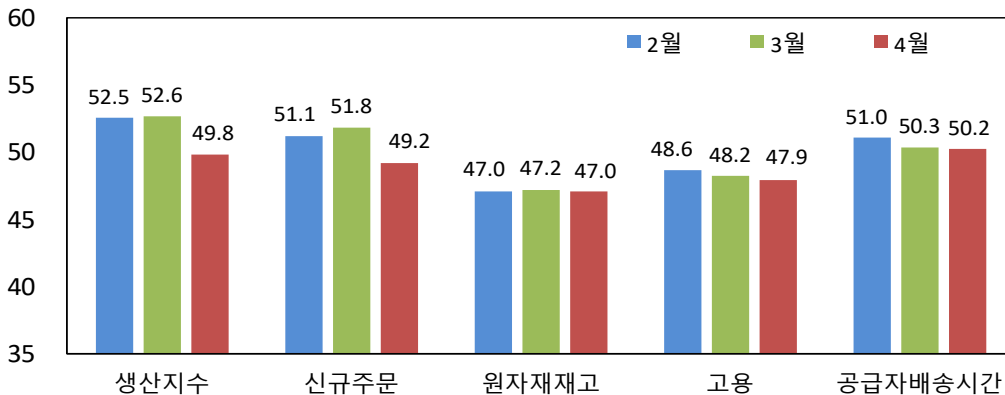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- 세부 항목별로도 생산(3월 52.6 → 4월 49.8), 신규주문(51.8 → 49.2), 원자재재고(47.2 → 47.0), 고용(48.2 → 47.9), 공급자배송시간(50.3 → 50.2)이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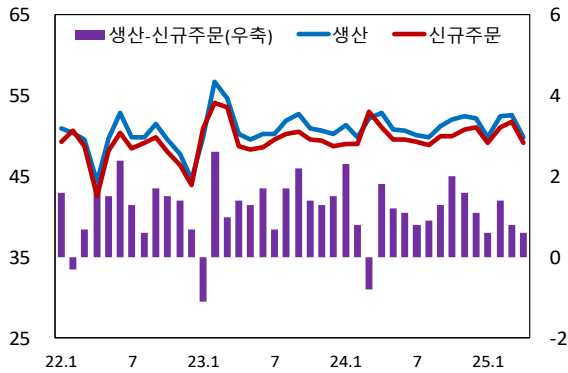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—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**생산지수**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**신규주문지수** 간 **차이**는 **축소**\*

\* 생산지수 - 신규주문지수: (24.12월) 1.1 → (25.1월) 0.6 → (2월) 1.4 → (3월) 0.8 → **(4월) 0.6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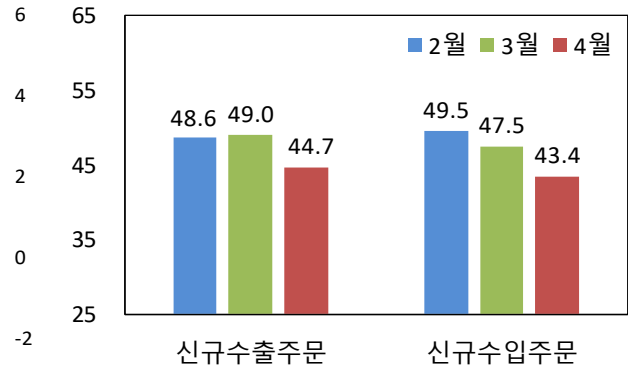
— **신규수출주문**\*(3월 49.0 → 4월 44.7)과 **신규수입주문**(47.5 → 43.4)도 모두 **하락**

**생산 및 신규주문 PMI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**수출입 관련 PMI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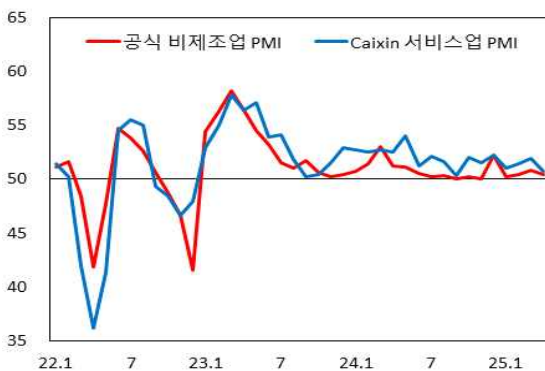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비제조업 PMI) 4월 비제조업 PMI**는 **50.4**로 전월(50.8)에 비해 **하락**(-0.4p)

○ **서비스업**(3월 50.3 → 4월 50.1)은 해상운송, 도·소매, 자본시장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**하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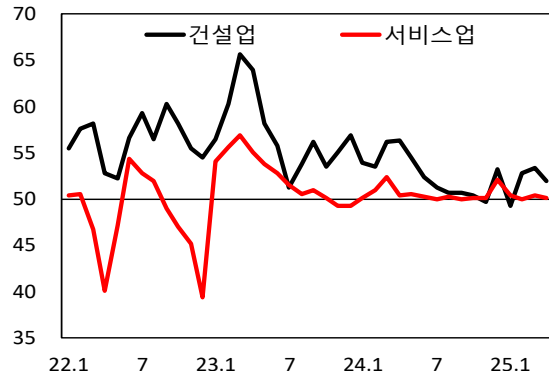
○ **건설업**(53.4 → 51.9)도 지방 주요 건설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, 부동산 투자 약세가 지속되며 주택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**하락**

**비제조업 PMI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**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종합 PMI) 4월 종합 PMI**\*(50.2)는 **전월**(51.4)에 비해 **하락**(-1.2p)

\*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

## 2. 시장평가 및 전망

### □ 4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는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락\*

\* 4월 제조업(49.0) 및 비제조업(50.4) PMI는 모두 시장 예상치(제조업 49.7, 비제조업 50.6)를 하회

○ **제조업 PMI**는 **대내외 수요 위축**의 영향으로 **하락**한 가운데, **첨단기술 제조업**(3월 52.3 → 4월 51.5)은 정부의 새로운 고품질 생산력 발전 지원 및 이구환신 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**대체로 양호**한 흐름(銀河証券)

— 신규수출주문 PMI(4월 44.7)는 美 관세정책에 대응한 선수출,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신규주문 감소 등으로 큰 폭 하락(-4.3p)하며 22.12월(44.2) 이후 최저치\*를 기록(民生証券)

\* 신규수입주문 PMI(43.4)도 중국내 기업의 수입 수요 감소로 크게 하락(-4.1p)하며 22.12월(43.7) 이후 최저치를 기록

— 한편 대내외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재고 조정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의 구매량(4월 51.8, 전월대비 -5.5p), 원자재 재고(47.0, -0.2p), 완제품 재고(47.3, -0.7p) 등도 감소(中信建投証券, 銀河証券)

○ **비제조업 PMI**는 제조업에 비해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, 내수 부진 지속, 美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**추가적인 경기진작책 도입**이 **긴요**한 것으로 평가

— 건설업은 정부가 특별채권 등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, 건설업 신규수주지수(4월 39.6, 전월대비 -3.9p)가 40을 하회하는 등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(財信国际经济研究院)

### □ **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**되는 가운데, 중국정부는 **고용 및 기업 안정**\*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·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전망

\* 지난 중앙정치국회의(4.25일)에서 안정적 성장 및 질적 발전 도모의 정책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'고용·기업·시장·기대심리 안정'(四穩)을 강조

○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중소 민영기업의 관세 피해 완화뿐만 아니라, 고용 안정 등 민생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\*

\* 트럼프 1기 사례에서 볼 때, 美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비해 중국의 고용 및 기업 전망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이 더 장기적이고 큰 것으로 판단(民生証券)

○ 한편, 글로벌 수요 감소 전망, 부동산 시장 부진, 내수 위축 등에 따라 주요 원자재 구매가격, 출하가격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\*(国泰海通)

\* 財信国际经济研究院, 招商宏观 등은 4월 생산자물가 하락폭이 전월(-2.5%)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(4월 생산자물가 예상치: 財信国际经济研究院 -2.9%, 招商証券 -2.8%)